장성군, 아열대작물 재배 '활발'

장성열대과일모음(애플망고, 구아바, 레드향, 삼채)

레드향 등 8개 품종 12.76ha 재배

군, 12억원 지원해 재배 역량 높여

장성군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아열대작물 지원이 성과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장성에는 45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애플망고, 구아바, 레드향 등 총 8개 품목 12.76ha 규모의 아열대작물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기관인 장성 미래농업대학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아열대작물 시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아열대과수 농가에 묘목, 시설 등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아열대과일 연구회를 조직해 제주도 견학,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며 재배 역량을 높였다.

최근에는 아열대과일인 '애플망고'를 올해 첫 수확했다. 애플망고는 맛이 달고 과즙이 풍부하며, 비타민 A, C, 엽산과 베타카로틴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시력 보호와 노화 방지에 좋다. 껍질이 초록색 또는 붉은색을 지니고 있어 '애플망고'라는 이름을 얻었다. 현재 장성 지역에는 2개 농가에서 0.8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인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사업의 대상지로 장성군이 선정됐다.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아열대작물의 신품종 도입 및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연구하는 국가 기관이다. 총 사업비는 부지 구입비 포함 약 350억원 규모로, 전액 국비 사업이다.

최종 확정된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는 연구동과 온실동, 실증 · 증식 포장 등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과수 분야 전문가인 정혜웅 한국농수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작물 재배 지역이 전남뿐만 아니라 이미 내륙 깊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륙인 장성에 위치한 아열대작물실증센터의 실증 · 연구 결과물들이 보다 더 넓은 수혜지역을 갖게 됨으로써 국산 아열대 과일과 채소의 본격 생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으로 농업분야 이외에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 및 고용 창출 등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에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조성되면 현재 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고르게 재배되고 있는 망고, 백향과, 구아바 등의 아열대 과일과 삼채, 강황 등 아열대과일과 채소에 대한 연구 · 개발을 통해 전남은 물론, 국가의 미래 농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박종영 기자

담양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 "예술 활기 가득 골목으로"

'담주 다미담예술구' 준비 착착…쓰담길 조만간 공개

담양군이 2017년부터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담주 다미담예술구 조성사업 중 예주구간인 쓰담길이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쓰담길 조성사업은 담양읍 담주4길 옛 원도심 일원의 건물을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상인과 문화예술 활동가를 지역으로 유입, 담양의 대표 관광지와 원도심의 가교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8%를 보이고 있으며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성 완료 후 7월 중에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국의 청년상인과 문화예술 활동가의 입주를 유도하고 입주자 선정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매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담주 다미담예술구는 예주구간과 미주구간으로 나뉘며, 예주구간은 담주 4길을 중심으로 쓰담길과 담양의 랜드마크가 될 담빛담루가 조성되고 미주구간에는 문화 복합상가 형태의 담양시장이 조성된다.

군 관계자는 "담주 다미담예술구가 완성되면 기존 생태관광지의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입해 구도심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 한수제 포토프레임

나주 다도한옥마을 포토프레임

나주 빛가람전망대 포토프레임

"인생 샷 가즈아"…나주시,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

금성산 생태 숲 · 한옥마을 등 10개소 포토프레임

나주시 주요 관광명소에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프레임이 설치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찍기 좋은 경관을 갖춘 관내 관광명소 10개소에 포토프레임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금성산 생태 숲 △다도 도래한옥마을 △산포 식산전망대 △나주영상테마파크 △동강 느러지전망대 △영산강 죽산보 △빛가람호수공원(2개소) △한수제 벚꽃길 △나주배박물관으로 지역 사진작가협회 추천, 문화관광 블로그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으로 선정됐다.

특히 포토프레임은 각 명소별 특징을 살린 한옥 · 산 · 강물 · 배 등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제작돼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진을 활용한 SNS홍보효과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지역 관광명소 포토프레임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2천년 호남역사문화 중심지 나주 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관광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곡성천문대에서 21일 부분일식 제대로 보세요"

이번에 놓치면 10년 뒤에

오는 21일 부분일식에 맞춰 곡성군 섬진강천문대에서 부분일식 공개 관측회를 개최한다.

관측회에서는 태양관측용 필터를 배포함으로서 부분일식을 비롯해 흥염, 흑점 등의 다양한 태양의 모습을 관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분일식에 대한 천문 강연, 태양과 우주에 관한 3D영상 관람 등의 프로그램도 알차게 구성돼 있다.

이번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의 52% 정도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이다. 15시 53분에 시작해 18시 09분에 일식현상이 종료되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곡성섬진강천문대 관계자는 "일식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 1년에 3~5회 발생하며 볼 수 있는 지역이 매우 좁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부분일식은 놓치면 향후 10년 뒤에 관측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곡성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장비 시연회

곡성군은 지난 17일 석곡면 하송마을회관 앞에서 월하시 작목반원과 전문컨설턴트, 장비 업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목별 맞춤형 안전장비에 대한 전시 및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참여한 석곡월하시 작목반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과정에서 관행적인 불안전한 작업과정을 개선하고,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감 작목의 농작업 위험성을 감소시켜줄 안전장비들을 선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보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참여 업체들은 병해충 방제 시 농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호구, 방제복, 농약보관함 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동가위, 동력살분무기 등 다양한 안전장비를 전시했다.

또한 전문가가 일련의 작업과정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시연하고, 향후 장비사용의 안정성, 적절성 등을 평가했다.

곡성=김광휘 기자